

연습생과 아이돌의 노동환경과 건강 실태에 불빛을 들이달 시간

- 영화 <힘을 낼 시간>

유형섭 선전위원

*이 글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K-POP 아이돌의 열기가 끓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로제의 APT가 이슈가 되고, 탄핵 집회에서도 아이돌 노래가 나온다. 아이돌 산업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생산물 또한 사회에 무시 못 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아이들이 꿈인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댄스, 노래 등 각종 경연 대회도 수시로 열린다. 매체에서는 성공한 아이돌의 화려한 모습만 나오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떨까? 성공하지 못한 아이돌이나 연습생들은 어떨까? 남궁선 감독의 영화 [힘을 낼 시간]은 성공하지 못한 아이돌, 아이돌 산업의 폐해를 다루고 있다.

여행에서 드러나는 아이돌의 시간

은퇴한 아이돌 수민, 태희, 사랑은 26살이 되어, 학창 시절 가지 못한 수학여행에 대한 미련으로, 전 재산인 98만 원을 들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 여행 도중 돈을 잃게 되어 제주 감귤 농장에서 굴 따기 일을 하고, 캠핑카에서 머물면서 각자의 상황이 점차 드러난다. 수민은 섭식장애로 음식을 넣는 족족 토하고, 사랑은 피해망상, 우울 등으로 정신과 약 없이 잠들지 못한다. 태희는 군 복무 중 팀 해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은퇴 후에도 계약 기간이 2년 남아 소속사 사장으로부터 빚 갚으라는 연락을 계속 받는다.

수민과 사랑은 러브 앤 리즈라는 여돌 그룹에 있었고, 나름 인지도를 쌓았지만, 동료의 자살 이후 팀이 해체되었다.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잘된 건 좋은데 그 뒤로 긴 바지를 안 입혀주더라고. 바지가 점점 짧아져. 그런 옷이 불편한 게 진짜 많거든. 생리도 못 하고, 일 년 내내 피임약 먹는 거지.” 태희는 투자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소속사 사장이 성 접대를 종용했던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렇게 아이돌 산업에서 몸과 마음이 갈려 나간 상태로 제주도에 온 그들은 감귤 농장에서 첫 ‘정산금’이란 것을 받아본다. 자신이 과거에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하기도 그리워하기도 하며, 여전히 앞으로의 살날이 막막한 상태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영화는 좌충우돌 흘러간다. 영화는 자신이 선택한 꿈을 쫓다가 실패한 이들의 상황이 개인 탓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

현실 속 아이돌, 연습생의 삶은

실제 K-POP 아이돌 산업 관계자들의 취재 자료나 증언을 보면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연습생으로 길게는 9~10년까지 무급으로 머무는 이들은, 과도한 경쟁과 다이어트 압박으로 인해 영양실조, 월경 장애나 정신 질환을 호소하기도 한다. 노동자도 학생도 아닌 위치에서, 휴대폰 없이 하루 15시간 동안 운동, 춤, 노래를 연습하는 연습생을 돕는 어떤 법이나 규제도 없다. 운 좋게 데뷔해도 소속사가 투자한 비용을 모두 갚아야 한다. 음악방송 무대 의상, 뮤직비디오 촬영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큰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기에 중소 규모 소속사일수록 아이돌이나 연습생에게 금전적인 독촉을 하고, 압박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아이돌 산업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중음악산업에서 기획사, 방송사, 투자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불공정이 발생한다. 특히 아이돌과 연습생에게 취약한 계약은 관행이다. 기획사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권력 불균형은 더 심해진다. 이러한 구조를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돌은 자신이 생산한 음반, 음원, 이미지 등의 소유권을 기획사에 넘기고, 불균형적인 수익 배분을 받고, 기획사의 계약 및 통제 속에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나 스케줄 결정권을 제한받는다. 가수라는 직업의 본질적 의미를 넘어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존재를 강요받으며, 인간 본연의 자아실현은 저해되고, 경쟁적인 연습생 시스템, 기획사의 통제, 대중 시선 등으로 인해 타인과의 자유로운 교류 및 관계 형성이 제한된다. 아이돌 그룹의 이런 소외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서 노동자가 겪는 소외와 유사하다. 슈퍼스타의 화려함 뒤에 대다수 아이돌 그룹의 열악한 현실과 소외가 감춰져 있다.

노동 착취 없는 케이팝은 가능할까?

들불에서 지난 9월 주최한 “케이팝 하는 여자들 talk” 중 ‘노동 착취 없는 케이팝과 팬덤 문화는 가능할까?’ 발제에 따르면 아이돌의 비가시화된 노동도 많다. 자컨(자체 제작



▲ 남궁선 감독의 영화 [힘을 낼 시간]은 성공하지 못한 아이돌, 아이돌 산업의 폐해를 다루고 있다. 사진 : 옛나인필름

콘텐츠), 비하인드 콘텐츠 촬영, 팬 사인회, 유료 메신저 소통, 광고 및 화보 촬영, 노래 및 안무 연습, 댄스 챌린지, 언어 공부, 꾸밈 노동, 다이어트 등등.

반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본업에 해당하는 음악방송 무대는 길어야 2주인데 비용은 많이 들어,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인 스케줄로 여겨진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본업이 아닌 스타디움 투어, 공연 실황 극장 개봉, 브랜드 앰버서더(자신의 SNS나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소개, 노출시킴) 되기 등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인지도가 높고 자본이 많은 소속사의 아이돌만이 할 수 있다. 아이돌들은 영원한 댄스 챌린지 찍기, 비하인드 콘텐츠, 팬들을 향한 유료 메신저(버블 등) 등등 실제 본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쉬는 시간이 없이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해야 한다.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서부터는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고, 친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아이돌과 팬 사이를 비즈니스 관계만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7년 내 아이돌로부터 최대한의 수익을 확보하려 하고, 아이돌들은 불투명한 정산 및 수익 구조로 인해 노동량에 비례하는 제대로 된 정산을 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아이돌 당사자의 발화가 부재한 상황이다. 당사자들이 실제 노동권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돌 및 연습생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24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뉴진스 하니가 국감에 출석한 뒤 “아이돌이 노동자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화려한 조명 밖에 가려진 연습생과 아이돌의 노동환경과 건강 실태에 불빛을 들이델 시간이다. 알터

참고 : 대중음악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계 분석틀(김선영, 임운택. (2023). 한국 아이돌 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계에 대한 다층적 실태 연구. 문화산업연구, 23(4), 163-175.)